

우진, 유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이미 뜯은 과자를 테이프로 봉해놓은 맛동산과 소주 두 병이 들어있다. 더러운 걸 만지듯이 손가락 끝으로 맛동산 과자를 상자에서 꺼내는 우진. 이내 테이블 반대편으로 맛동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상상)의 모습이 보인다. 허름한 차림새로 앉아 멍하니 우진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우진은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다.

우진 아버지. 이딴 게 유품이예요?
아버지 (말이 없다.)
우진 아니 얼마나... (상자에서 소주를 꺼내며) 얼마나 인생에 남길 게 없었으면
 먹다만 과자 남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아버지 ..아니다.

상자를 내려놓다 멈칫하는 우진.

아버지 먹다 남은 거.. 아니다.
우진 .. (피식) 죽어서도 할 말은 있으신가보네.
 그래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진은 쟁반에 소주잔 두 개와 가위를 챙겨와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는 잔을 아버지와 자신의 앞에 놓는다.
소주병을 따서 아버지 잔을 채우는 우진.

우진 죽어서 못 드시면 나 혼자 마시고..

우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잔을 가지고 가 목구멍에 소주를 훑 털어 넣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던 우진도 자신의 잔을 채워 똑같이 훑 털어 넣는다.

아버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라. 마지막 기회니까.
우진 (울컥) 기회..?
 아버지 지금.. 기회라고 했어요, 나한테?
 아버지 뭐 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만다야?!

아버지, 씩씩대는 우진의 잔을 조용히 채워주고 자신의 잔도 채운다.
소주를 한번에 꿀꺽 삼키는 우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잠시 허공을 보며 눈알만 굴린다.

우진 마지막 기회... (사이)
 난 당신처럼 안 살거야. 가족 같은 것도 안 만들거야.
 나같이 불쌍한 애도, 엄마처럼 외로운 인간도.. 난 안 만들거라고. 절대.
아버지 ...가족은 있어야지... 안 그럼 외로워.
우진 (주먹을 꼭 쥐는, 끓어 올라오는 분노로 숨이 차오르는데)